

故 노회찬 의원, 눈물의 마지막 가는 길

국회장 영결식 엄수

문화상 “엄청난 충격” 비통 심상정 “역장 무너진다” 시민들도 함께 눈물 흘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엄수됐다.

국회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됐다. 짙은 듯한 무더위에도 동료 국회의원, 일반 시민 수백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국회장 장의위원장인 문화상 국회의장은 영결식에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에 황망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라고 비통해했다.

문 의장은 “차마 이 길을 선택한 노회찬 의원의 고뇌와 번민, 회한과 고통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 흐른다”며 “당신은 여기서 멈췄지만 추구하던 가치와 정신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조사에서 “노회찬을 잃은 것은 그저 정치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다”며 “그는 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단 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그는 “대학생 노회찬은 노동 해방을 위해 용접공이 돼 인천으로 향했고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진보정치 단체들을 두루 이끌며 청춘을 바쳤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만들고 키워 온 정의당을 위해 그의 삶을 통째로 바쳤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조사를 남독

하기 전부터 흐느꼈다. 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시간이 스쳐 지나가듯 중간마다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이의 침묵은 이 심전심이고 믿음이며 위로였기에 지금껏 그래 왔듯 그저 침묵으로 기도하면 될 줄 알았다”며 “저의 아등한에 가슴을 찡니다. 철쭉 같은 고독 속에 수 없는 번민을 지새웠을 당신을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진다”고 자책했다.

그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 당신이 감당했던 천근만근 책

임을 온몸으로 받아 안을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이 그 유지를 가슴 깊이 아로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진보정치, 정의당은 더 강해지겠다.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의 조사를 들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렸다. 영결식에 참석한 시민들도 심 의원의 눈물에 영결식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어 급속노동자 김호규 씨의 조사 낭독에 이어 고인의 생전 영상이 상영됐다.

/뉴스1

김병준, 오늘 봉하마을 방문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30일 오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위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신으로 한 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려 이번 방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지난 27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후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 현충원에 찾아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방문한 바 있어, 이의 일환으로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한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후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겸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역임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 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윤영석 수석대변인,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경남 지역 의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양숙 여사와의 면담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유승민, 안중범 민원문자에

“청탁으로 비친점 송구”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전 공동대표)이 안중범 전 수석에게 보낸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자료를 내어 “어젯밤 SBS 블랙하우스에 방송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며 “제가 안중범 전 수석에게 인사와 관련해 문자로 문의하고 사람을 추천했던 적이 있었고, 이 문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이 보도되었고 소명할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의 의도는, 청와대가 미리 내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정된 인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으로 비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28일 유 의원과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모두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안 전 수석에게 금융계 인사 청탁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카드수수료 0원, 연말까지”

홍영표, 영세업자 위한 제로페이 마련 등 법안 8월 중 처리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8월 중 야당과 협의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이 전부 아니다”며 “입대료 부담과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등의 문제를 해결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수수료를 제로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 문제는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며 “600만 명이 자영업자지만 이중 절반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을 밑돌 정도로 어렵고 400만 명은 1인 노동자”라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열악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집권 2기를 맞아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뉴스1

“장애인 유권자 선거권 보장 강화... 평등선거 실현”

김철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철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이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

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5만 명이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표 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해 진정한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